

신촌의 허름한 골목에 헌책방 '숨어있는 책'이 숨어 있다. 작심하고 찾지 않으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이다. 행인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야만 하는 대로와는 달리 인적

용히 기다리고 있다.

서가와 서가 사이의 통로에 쌓인 책들을 헤쳐가야 하고 책들이 계통 없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고 한두 권 뒤적이다 보면 금세 손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다른 헌책방과는 달리 이곳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주인의 섬세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다. 주인은 30여 평 남짓한 공간에 책들의 소유주를 꾸며 놓았다. 엄격한 분류 원칙에 따라 책들이 배열되고 책에 쌓인 먼지는 털려진다.

숨어있는 희망을 찾아 떠도는 숨은 책벌레

— 헌책방 '숨어있는 책' 주인 노동환씨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헌책방 숨어있는 책은 책벌레들의 작은 성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책방 주인 노동환씨의 책에 대한 뛰어난 안목과 무사무욕의 철학 덕분이다. 사업가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책을 파는 일보다 사는 일을 더 즐기는 조금은 별난 사람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결코 멸종되지 않을 헌책방의 미래를 본다

도 뜬 편이다. 환락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청춘이라면 골목 어귀에서 발길을 돌릴 법하다. 분야성을 이룬 도시 뒤편에 겨우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불빛을 보는 듯하다. 빛의 속도로 뿔뿔히 찢어지는 세상에서 한발 물러나 속도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책방에 들어서면 낮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사이로 간간이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인도 손님도 책도 모두 과묵하다 싶을 만큼 말을 아끼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냉담하다는 말은 아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을 뿐이다. 주인은 책을 읽거나 분류하는 데 여념이 없고, 손님은 어딘가 숨어 있는 자기만의 진주를 캐느라 눈을 번득이고 있다. 책은 자기를 구원해 줄 손길을 조

책벌레들의 작은 성소

숨어있는 책은 책벌레들의 작은 성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 헌책의 면면이 다른 헌책방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헌책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부터 철지난 여성지까지 모든 종류를 갖추고 있지만 쓸모 없는 책이 태반인 반면, 이곳은 인문·사회과학·예술서 가운데 정평 있는 책들로 서가가 비좁다. 게다가 책값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구매의욕을 떨어뜨리는 다른 곳과는 달리 책값도 합리적으로 매겨져 있다. 그러니 이곳에 들른 손님이 빈손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에 의해 점유된 공간은 주인의 성격이나 취향을 닮게 마련이다. 숨어있는 책도 마찬가지다. 책방 주인 노동환씨(38)는 헌책방 운영자라고 하기엔 뜻밖에도 나이가 젊고 장사꾼이라고 하기엔 영악한 계산이 없어 보인다. 책 냄새를 맡고 들어온 이들에게 은근히 구매를 채근하는 일도 없고 어슬렁거리기만 하다 빈손으로 가는 이들에게 눈을 흘기지도 않는다. 그저 책을 찾는 이들의 동선이 영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책들도 제가 있을 곳에 꽂혀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노동환씨가 헌책방 주인이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의외면 서도 한편으로 지당한 일이다. 명문 사립대 중문과를 졸업한 젊은이가 고작 헌책방을 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헌책방이라고 하면 사양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 않는가. 그러나 그에게 헌책방은 어릴 적부터 친숙한 곳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헌책방 순례길에 나선 조숙한 책벌레였으니 말이다. 더욱이 열화당과 눈빛출판사의 편집자 출신이었으니 그에게 책은 제2의 천성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하필 장래가 뻥한 헌책방이었을까.

“헌책방이 사양길에 접어든 업종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멸종되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책 근처에서 일하고 싶었죠. 내 방식대로 책방을 꾸려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대학 졸업 후 그의 첫 직장은 섬유를 다루는 회사였다. 활자에 중독된 그에게 섬유업은 체질에 맞지 않았다. 답답할 때마다 들락거린 곳이 헌책방이었다. 헌책방에서 찾던 책을 발견하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이 행복했다. 1년만에 섬유회사를 떠나 찾은 직장이 예술전문 출판사 열화당이었다. 5년 가까이 글자를 다듬는 일에 재미를 붙이며 살았다. 사진 전문 출판사 눈빛출판사 편집장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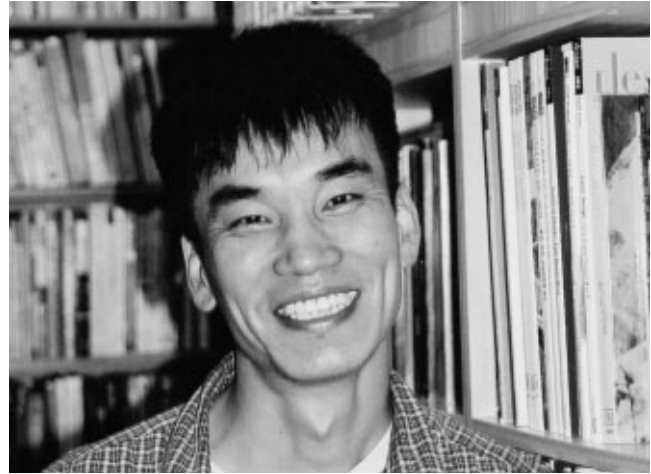
편집자는 그의 삶이 대안이 되지 못했다. 1999년 11월 편집자였던 부인과 함께 헌책방을 열었다. 자기 소장도서와 주변사람들의 책 8천여권으로 시작했다. 인문·사회과학·문학·예술서로 분야를 특화시켜 갈작정이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헌책 사냥꾼들에게 좋은 책들이 금방 털렸다. 새 헌책을 채워 넣는 게 그의 당면과제였다. 고물상을 이 잡듯이 뒤지기도 했지만 쓸 만한 책이 거의 없어 포기하고 주로 도매 헌책방을 주거래처로 삼았다.

파는 일보다 사는 게 더 즐겁다

그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헌책 사냥에 나선다. 많을 때는 예닐곱 군데, 적을 때는 두세 군데 거래처를 돌며 보통 400권에서 500권 정도 책을 사온다. 이렇게 책을 사 모으다 보니 창고에 쌓인 책까지 합쳐 5만여권에 육박한다. 책을 고를 때는 그만의 원칙이 있다.

그가 읽고 싶은 책에 우선 손이 간다. 학술서는 대학 교재를 빼고는 모두 챙긴다. 명망 있는 저자나 검증된 출판사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결국 주관적인 수집원칙이긴 하지만 요즘 독자들의 취향을 따라잡기 위해 신간 동향에도 귀를 열어둔다. 헌책 구매에 이력이 불다 보니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친 것들이 눈에 띈다.

“국내 출판계의 흥망성쇠가 헌책방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간이 적게 팔리면 헌책방에 들어오는 책들도 적을 수밖에



▲ 헌책방 '숨어있는 책' 주인 노동환씨

에 없죠. 새책방의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는 헌책방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99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침체를 반영하듯 헌책방에서도 좋은 인문·사회과학 책들이 희귀합니다. 결국 헌책방은 출판계의 종속변수인 셈이죠.”

그는 헌책방 주인으로서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려 한다. 무리하게 공간을 확장하기보다는 빈 책꽂이에 좋은 책들이 수시로 빠지고 채워지기만을 바란다. 헌책방도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 서두를 마음이 없다. 매장에 집중하며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책방을 찾는 손님들과도 거리를 두려 한다. 책에 대한 안목이 높은 손님들과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다. 무엇보다 본인의 책 욕심을 경계한다.

“저는 책 수집가가 아니라 책을 파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남의 손에 들어갈 책이기 때문에 책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책을 파는 일보다는 사는 게 더 즐거워요. 욕심이 있다면 손님들이 애타게 찾는 책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사전》에서 유목민들이 지배하는 21세기에 책은 첫 번째 유목물품이 될 것이라고 점친 바 있다. 아탈리가 예언했듯 오랫동안 책을 대적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정주지를 벗어나 상상의 매혹을 찾아 떠도는 이들에게 헌책방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남을 것이다. 유목민의 밤을 밝히는 불빛으로 숨어있는 책이 우리 곁에 숨어 있다. **KOVA**